2013학년도 고려대학교 논술고사(인문계)

● 출제 방향과 문제 해설

1. 2013학년도 논술고사 출제의 기본 방향

2013년 논술고사 출제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가)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시험의 평가요소를 보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1) 다양한 제시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교하여 서술하는 능력
2) 제시문에서 주제의 핵심을 적절히 추론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논술 능력
3) 인간 및 사회 현상의 분석을 위한 기초 수리적 사고 능력

나) 제시문 (1), (2), (3)의 난이도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평균 수준을 유지하되, 논제 I은 고등학교 상위권 수준의 이해 능력, 분석 능력, 추리 능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출제했다. 제시문 (4)는 앞의 제시문들과 연관된 구체적인 사회 현상에 대한 수리적 사례이며, 논제 II는 고등학교 수학 수준의 논리적 추리 전개 능력을 질문하고 있다.

다) 2013년도 인문계 논술고사의 시험시간이 100분으로 축소된 것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시간의 부담을 크게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제시문과 논제를 제시했다.

2. 제시문 해설

[인문계A]

2013학년도 고려대학교 논술고사의 주제는 '상품화'이다. 제시문들은 이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형식과 내용을 담은 글들이다.

(1)

(가)는 조선후기 학자 성대중의 『청성잡기(靑城雜記)』에 실려 전하는 '매품팔이' 야담의 일부로서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서 발췌했다. 남이 맞을 매를 대신 맞다가 죽음에 이른 한 사내의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야담이지만, 한편으로는 신체의 상해를 무릅쓰고 매 맞는 일을 생계 수단으로 삼아야 할 만큼 힘겨운 삶을 살던 이들이 있었으며 자신이 받아야 할 형벌을 돈으로 사고팔 만큼 많은 가치들이 거래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나)는 『한국일보』 2009년 7월 4일자에 실린 독자투고 칼럼의 일부를 발췌하여 다듬은 것이다. '결혼식 하객'을 비롯한 각종 대행 도우미가 신종 사업으로 성행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글의 화자와 '신랑 아버지'는 '친구 관계'를 돈으로 사고판 셈인데, 이러한 거래는 인간 관계에 의한 소중한 정신적 가치들이 시장에 의해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2)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Sandel, Michael, *What Money Can't Buy*, London, 2012; 안기순 역, 2012)에서 인용하여 변형한 글이다. 여기에서는 거의 모든 것을 사고팔 수 있게 된 현대 사회에서 시장의 도덕적 한계와 관련해 공정성(fairness)과 가치 훼손(corruption)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먼저 공정성은 시장에서 재화의 거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못한지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문제이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재화를 거래해야만 하는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루어지는 거래는 불평등을 초래하게 된다.

다음으로 가치 훼손은 거래의 공정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것은 거래 행위로 인해 재화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를 말한다. 주로 정의, 사랑, 우정 등 인간의 도덕적 신념이나 공동체의식, 평등, 협력 등 사회적 미덕과 같은 것들이 거래의 대상이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2)에서 제시된 신장 거래의 예에서 신장의 판매 결정이 자발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와, 신장 거래 자체가 변질되고 객체화된 인간관의 만연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은 가치 훼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거대한 전환: 우리 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Polanyi, Karl,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1944; 홍기빈 역, 2009)에서 인용했다. 폴라니는 여기에서 자기조정 시장이라는 아이디어를 비판한다. 재화의 생산과 분배 체제를 갖추지 않은 사회는 없지만, 경제제도가 사회에서 분리되어 존재하지는 않는다. 시장 메커니즘은 상품으로 이루어진다. 폴라니는 현실의 시장과 상품을 경험적으로 정의한다. 이럴 경우, 노동, 토지, 화폐에 관한 한 결코 상품논리가 적용될 수 없다. 노동이란 인간 활동의 다른 이름일 따름이다. 토지란 자연의 일부일 뿐이다. 화폐도 구매력의 징표일 뿐인데, 이는 은행업이나 국가금융의 메커니즘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생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노동, 토지, 화폐를 상품으로 묘사하는 것은 전적으로 허구이다.

자기조정 시장 옹호자들에 따르면, 시장 메커니즘이 현실 세계에서 상품 허구의 원칙에 따라 작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제도나 행위도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폴라니는 인간과 자연환경의 운명이 순전히 시장 메커니즘에 좌우된다면 결국 사회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인간과 자연이라는 사회의 실체 및 사회의 경제조직이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경제에 노출된다면, 그렇게 무지막지한 상품 허구의 경제체제가 몰고 올 결과를 어떤 사회도 단 한순간도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4)

물건을 임의의 사람에게 배분할 때 어떤 배분 방식을 따르는 것이 더 나은지를 간단한 수리적 예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 가격을 통한 시장 기제는 높은 지불 의사를 가진 사람(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에게 물건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가장 효율적이나, 이 경우에는 사람들의 지불 능력 차이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시장적 배분 방식을 결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결과를 낳는다. 이 예는 경제학 내에서 인식하고 있는 시장적 배분 기제의 나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인문계B]

2013학년도 고려대학교 논술고사(인문계B)의 공통 주제는 '평판'이다. 제시문들은 이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형식과 내용을 담은 글들이다.

(1)

『무엇이 우리의 관계를 조종하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에 흔적을 남기는 평판의 힘』(Whitfield, John, *People Will Talk: The Surprising Science of Reputation*, 2012; 김수안 역, 2012)과 『온라인 평판시스템의 순기능 제고 방안』(이호영 등, 2009)을 출제의도에 맞추어 발췌하고 편집한 글이다. (1)은 평판을 정의하고 평판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한 노력과 경쟁이 발생하는 가운데 평판의 장이 형성된다고 본다. 소비자 구매 시 중요한 참고가 되기에 좋은 평판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여러 작위적 노력이 생산자에 의해 제공되기도 하기에 평판이 실재를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여기에서 평판의 신뢰도 문제가 대두된다. (1)은 수험생으로 하여금 평판의 의미와 한계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있기에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2)와 (3)에 나타나는 평판이 지니는 사회적 효과와 평판의 신뢰도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사유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2)

Super Cooperators(Nowak, A. Martin, 2011)에서 인용하여 출제의도에 맞춰 변형한 글이다. 여기에서 주제는 평판의 사회적 효용인데 '간접 상호주의'의 근간으로서 평판의 역할을 논한다. 간접 상호주의는 '조건적 이타주의'와 연결된다.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여 남을 돕는다든지 새 실크 넥타이를 기름얼룩으로 버리는 것처럼 평판 구매자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이런 비용에도 불구하고 남을 위한 선행이나 협력이 일어나는 이유는 평판이 복잡한 관계의 망 속에서 연쇄적 효과를 통해 가져올 미래의 혜택 때문이다.

평판을 매개로 한 현재와 미래 사이에 존재하는 비용과 편익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좋은 평판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이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관찰되는데, 간접 상호주의는 이를 잘 포착한다. 간접 상호주의의 작동이 평판의 신뢰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평판의 신뢰도가 낮은 사회에서는 이러한 간접 상호주의적 선행이나 협력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추론할 수 있다.

(3)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실린 성석제의 단편소설 『조동관 약전』(2003)을 출제의도에 맞춰 제시한 것으로, 동관이라는 인물에 대한 평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동관은 은척읍에서 '똥깐'이라고 불릴 만큼 악명이 자자하다. 동관의 악명은 그가 저지른 악행에서 비롯하지만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 부풀려지기도 한 것이다. 동관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화들은 대부분 직접 목격된 것이라기보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것이다. 따라서 동관의 나쁜 평판과 사실 사이에는 분명한 괴리가 존재한다. 그러한 사정이 제시문 중에 "다만 똥깐이와 한 시대를 산 사람들이 똥깐이를 낳고 똥깐이를 만들고 똥깐이를 죽이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일부로 평범한 사람 조동관을, 자신들과는 다른 비범한 인간 똥깐이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동관에 대한 평판은 사실에 비추어 그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 제시문은 평판의 신뢰도를 문제 삼음으로써 (2)의 주장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2)는 간접 상호주의에 의해 평판이

협력을 가져온다고 주장하지만 (3)은 평판이 부정확한 사실이나 소문에 의해 형성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3)은 (2)의 전제를 비판하는 성격의 글이다.

(4)

(2)에 나타난 간접 상호주의를 통하여 평판이 선행을 촉진하거나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 이 사회에는 만나는 상대방에게 항상 선행을 하는 이타주의자들, 만나는 상대방에게 전혀 선행을 하지 않는 이기주의자들, 그리고 평판이 좋은 상대방에게는 선행을 하지만 평판이 나쁜 상대방에게는 선행을 하지 않는 상호주의자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매 시기 무작위적 짝짓기를 통하여 상호작용을 주고받는다. 상대에게 선행을 할 때 즉각적으로는 비용이 들지만 자신의 선행을 관찰한 상대방으로부터 차후에 선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선행이 항상 개인적으로 손해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 끝 –